

2014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I)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음.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경제라는 용어를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경(經)’은 다스린다는 의미를, ‘제(濟)’는 건져 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은 ‘치(治)’ 혹은 ‘리(理)’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그것은 일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린다는 의미로 확대된다. 그리고 ‘제(濟)’는 환난과 위급에서 사람을 구제해 낸다는 것으로, 가깝게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멀게는 인류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경제’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경국제민(經國濟民)’ 혹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임말로 인식되어 왔다. 유학(儒學)에서는 이런 경제 사상에 근거하여 백성들 사이의 균등, 특히 분배의 균등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맹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나온다.

“(임금의) 푸줏간에는 기름진 고기가 넘쳐 나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가득한데도 백성들은 배를 굶고 들판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다면, 이것은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몇몇이 살 수 있는 향산(恒産: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그로 인해 향심(恒心: 인륜과 질서를 지키는 몇몇한 마음)도 없어질 것입니다.”

맹자는 특히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려면 ‘향산’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향산이 없으면 이들이 빈곤한 처지로 추락하고 나아가 기본적인 윤리와 질서도 지킬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는 분배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전법(井田法)과 같은 토지 제도를 제안하였다. 경제에 대한 이와 같은 전통적 관념 중에는 모든 백성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생업을 가져 몇몇이 살며, 균등한 분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하려는 배려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일반적으로 빈곤은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나 빈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또는 제약이 얼마나 큰지도 고려해야 한다. 아마티아 센은 빈곤을 ‘역량(capabilities)의 부족’이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역량이란 직업, 소득, 재산 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은 물론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여 최소한의 삶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리킨다. 역량이 부족할 때에는 주어진 상황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더 곤궁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적절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몸집이 아주 큰 사람이 보통 사람들과 동일한 수입을 얻는다면 신체적 활동을 하는 데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역량이 부족하면 더 빈곤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난을 판단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정해진 빈곤선을 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개인의 역량이 얼마나 잘 발휘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단식을 하는 사람과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을 비교해 보자. 두 사람 모두 영양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굶어야 하는 사람, 즉 적절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만이 빈곤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다니엘 디포는 빈민들이 구호(救護)를 받게 된다면 임금을 받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이 이런저런 공공기관에 투입되어 공산품을 생산한다면 민간 제조업 부문에서 더 많은 실업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포가 “시혜를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빈민들을 고용하면 온 나라에 민폐가 된다.”라고 한 역설은 장차 겪게 될 골치 아픈 문제들을 예견하고 있었다. 실업자들을 굶주림이라는 칼날로 쿡쿡 찢어 일자리를 갖게끔 해도 시원찮을 판에 시혜를 베풀어 그 칼날을 거둔다면 결국 생산 활동을 방해하여 기근만 야기할 것이라 보았다. 또한 빈민들을 고용할 경우 그로 인하여 시장에 상품이 넘쳐나기 때문에 가격 폭락이 일어나고 결국 상인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 디포의 주장이었다.

[라] 산업 시대의 빈곤층은 노동 예비군으로 재정의되었다. 고용은 안정적이면서도 해악을 끼치지 않는 규범으로 자리를 잡았던 반면, 빈곤은 실업과 동일한 것으로서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비정상적인 상태로 간주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성장에 장애가 되는 빈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을 유인하거나 강요하여 공장 노동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했다. 이런 대책들이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동정심을 자아낼 수 있었겠지만, 빈곤층은 노동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원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포기해야만 했다. 이처럼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빈곤층을 돕자는 고상한 도덕적 의무를 굳이 들먹일 필요가 없었다. 대신 노동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빈곤, 노동력 부족, 그리고 혁명의 위협이라는 여러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노동 윤리를 통해 노동이라는 고역을 도덕적 의무로 격상시킴으로써 노동을 해야만 하는 이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도덕적 양심을 중시하는 이들의 비위를 맞추어 주었다.

당시의 여론은 노동 윤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를 이루고 있었다. 빈곤층이 거칠고 고집스러운 야수이기 때문에 잘 길들여야 한다는 입장과, 이들을 윤리와 양심, 공감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이 있었지만, 양쪽 모두 노동 윤리가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존 로크는 ‘방탕한 자들’과 ‘게으름뱅이들’을 뿌리 뽑을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빈민들은 원래 방탕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빈곤층 학교에 별도로 수용해서 정상적인 노동 훈련을 받도록 하고, 부모들은 엄격한 규율, 절제, 강제 노동, 체벌이 지배하는 구빈원(救貧院)에 수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와 달리 빈민들의 슬프고 비참한 처지와 운명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빈민을 노동하도록 만드는 과제를 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간주하고 있었다.

[마] 표준 경제학은 미국의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 기술과 금융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가난하다고 본다. 하지만 빈곤을 분석할 때 ‘우리’와 ‘그들’의 차이, 자존감의 추구, 빈곤층이 겪는 불공정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간과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두루 고려하건대, 흑인들의 빈곤은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경제적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빈곤의 덫에 걸렸다.

백인과 흑인 사이에는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 인식은 일상화된 현실이 되었으며 이 현실은 흑인들의 지속적인 빈곤에 금융 자산과 기술의 부족만큼 영향을 끼쳤다. 미국이 비록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행하여 이러한 인식을 완화시켜 왔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이를 명확히 보여 주는 것이 학교이다.

흑인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갈 무렵이면 이미 자신이 흑인이며, 흑인은 백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들은 대개 백인 아이들보다 집이 가난하고,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모나 친척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설령 자신의 집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웃에는 수많은 문제 가정이 존재할 것이다. 게다가 학교는 중산층을 기준으로 삼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산층의 윤리를 가르친다.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 학교의 교사들은 가난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킬까 두려워한 나머지 이들이 중산층 학생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벌을 주었다. 이러한 차별 조치는 12~13세의 아이들에게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분노를 심어 주기에 충분했다.

[바] 산속에서 살다 보니 별다른 일이 없어 세상 사물의 이치를 관조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악착스레 이익을 추구하며 정신없이 내달리느라 고달프다. 그러나 돌아보면 모두 쓸데없는 일이다. 누에가 세상에 나올 즈음이면 뽕잎이 활짝 피고, 제비 새끼가 태어날 즈음이면 벌레들이 온 들에 가득하다. 아기가 첫 울음을 울면 어미 몸에는 벌써 젖이 흐른다. 하늘은 만물을 내며 그 먹을 것도 함께 내준다. 어찌 근심하며 허둥지둥 움켜질 기회를 놓칠까만 염려한단 말인가?

옷은 몸을 가릴 수 있으면 그만이고 음식은 배를 채울 수 있으면 그만이다. 봄이면 보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곡식이 있고 여름에는 벼가 날 때까지 이어갈 낱알이 있으면 그만일 뿐이다. 올해에는 내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 어찌 알겠는가? 아들을 어루만지며 손자와 증손자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만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은 모두 바보라는 말인가?

설령 우리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면서 평생 아무 근심 없이 살다 죽는다 하더라도, 죽고 나면 살과 뼈가 모두 썩고 만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책 한 상자라도 써서 남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을 살았다고 여긴다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생각이 짧은 세상 사람들은 성정(性情)을 수양(修養)하는 일이 모두 쓸데없다고 하고, 책을 읽고 연구하는 행동을 그저 옛 이야기쯤으로 치부한다.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그 정신을 기르는 자는 대인(大人)이 되고 그 육체를 기르는 자는 소인(小人)이 된다.”고 하셨다. 만약 이를 알지 못하고 기꺼이 소인이 되겠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겠는가!

[사] 상류 사회 사람들의 대저택, 정원, 마차, 하인 등은 분명히 눈에 띄는 편리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보이는 대상들이다. 우리는 매우 쉽게 그 편리함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리고 소유한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에 공감하며 선망의 눈길을 보낸다. 그러나 이쑤시개, 귀이개, 손톱깎이 따위의 소소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그리 뚜렷한 관심을 표현하지 않는다.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들은 부(富)와 권세의 장엄함과 비교할 대상이 못 된다.

부와 권세는 남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킨다. 외딴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커다란 저택과 소소한 물건 상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행복감을 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만약 사회 안에 살고 있다면 이는 비교할 필요도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자신의 감정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더 많이 고려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더 의식하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도 부와 권세를 지닌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반드시 더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는 여길 것이다.

1 제시문 [가]~[라]와 관련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가]와 [나]를 A, [다]와 [라]를 B로 묶을 때, 빈곤에 대한 A와 B의 시각 차이를 대비하시오.
- (2) 빈곤 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가]와 [나]의 차이, [다]와 [라]의 차이를 각각 서술하시오.

2 제시문 [마]와 [바]의 빈부에 대한 견해를 요약하고,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문 [사]를 비판하시오. [30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일자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근로자 본인이다. 일자리는 소득을 제공하고 각종 혜택을 누리게 해 주며 삶의 만족도를 높여 준다. 일자리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소득, 고용 기회나 생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사회 전체의 공존과 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 규범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자리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을 넘어서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진 직업은 개인에게 주는 것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지니며,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진 직업은 그 반대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직업의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콜롬비아, 이집트와 시에라리온에서 직업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직업과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직업에 대해 서로 다른 답변을 했다. 대체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이나 상점 주인인 반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직업은 교사나 의사였다. 공무원이 개인적 선호도보다 사회적 중요도에서 더 높게 나타난 곳은 4개국 중 중국뿐이었다. 중국에서는 또한 의사에 부여하는 개인적 선호도와 사회적 중요도가 모두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집트에서는 교사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가 사회적 중요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농부는 시에라리온에서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모두 비슷하게 중시되는 직업인 반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개인적 선호도보다 사회적 중요도에서 비교적 더 높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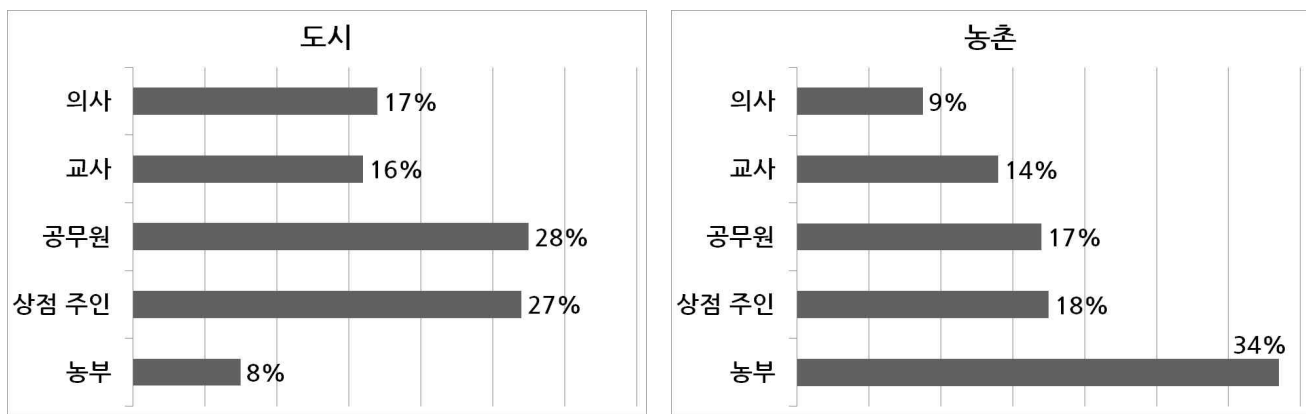
- (1) 제시문이 소개한 조사에서는 개인적 선호도와 사회적 중요도 이외에도 응답자가 느끼는 직업별 취업 가능성을 물어보았다. <표>는 4개국 중 어느 한 나라 응답자들의 취업 가능성 설문 결과를 지역 및 성별로 세분화한 자료이다. 성별 응답을 검토해 보면 응답자 중 남성과 여성의 구성비가 1:1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중 도시와 농촌의 구성비를 추론하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표> 응답자가 느끼는 직업별 취업 가능성 (값 설명: 1 = 매우 가능, 8 = 매우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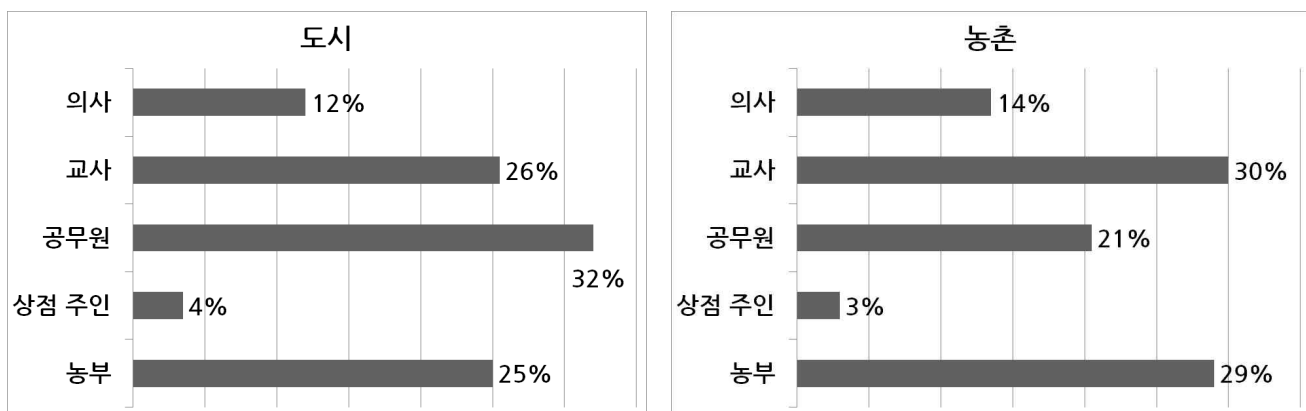
직업		농부	상점 주인	교사	의사	공무원
지역별	도시	2.8	3.8	4.9	5.7	5.7
	농촌	1.8	4.2	5.3	5.5	5.9
성별	남성	2.1	4.3	5.3	5.5	5.7
	여성	2.0	3.9	5.1	5.6	6.0
전체		2.05	4.10	5.20	5.55	5.85

- (2) <표>와 동일한 나라의 응답자들의 직업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와 사회적 중요도 답변을 도시와 농촌으로 세분화한 결과가 <그림 1>과 <그림 2>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이 나라가 4개국 중 어느 나라인지를 (1)에서 구한 도시와 농촌의 구성비를 활용하여 추론하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그림 1> 직업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 (각 직업을 1순위 선호도로 꼽은 응답자의 비율)



<그림 2> 직업의 사회적 중요도* (각 직업을 1순위 중요도로 꼽은 응답자의 비율)



* 5개 직업 이외의 직업들에 대한 결과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비율의 합은 100%가 아님.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출제 의도 및 우수답안

- ◆ 대학명: 이화여자대학교
- ◆ 모집시기: 수시모집
- ◆ 전형명칭: 2014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 ◆ 모집계열: 인문계열 11
- ◆ 출제유형: 통합교과형 중 자료제시 논술형

◆ 개요

- 시험시간: 100분
- 출제문항수: 3문항
- 답안지 양식, 작성 분량: A3용지 2페이지
- 지정된 필기구 : 검은색 펜이나 연필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음

◆ 출제방향(취지) 및 교과서 관련여부 및 근거:

2014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11의 경우 빈곤과 빈민구제, 고용 등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과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분석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아울러 세계의 고용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와 분석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다양한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는 문항들이므로, 관련 주제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사고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모든 제시문의 소재와 범위를 학교 교육과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도록 주제 선정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오늘날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슈들을 성찰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자 하였다. 따라서 평소 교과서의 내용을 숙지하면서 이를 인문사회적 현상에 응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학생들이라면 별도의 선행지식 없이도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평가기준:

- ① 주어진 상황과 제시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
 - 핵심적인 개념, 주장과 근거, 제시문에 대한 종합적 이해력
 - 올바른 자료해석 능력 및 사고의 정확성과 통합성
- ② 객관적 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논증력
 - 주어진 조건과 관계없는 장황한 자기 주장은 감점 요인
- ③ 제시문 주장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비판 능력
 - 문항 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제시문 주장에 대한 비판 능력
 - 구체적 사례와 일반적 주장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사고 능력
- ④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 능력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의 명료성 등
 -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과 일관성 있는 사고력과 논리력

◆ 출제문제 해설

[출제의도]

[문제 1] 이 문제는 학생들이 빈곤에 대처하는 다양한 입장과 방법에 대하여 그 이유와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이를 위해 빈곤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입장들을 나열한 후에 유사한 입장들을 구분한 후 각각의 특징을 찾아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에 관련된 4개의 제시문들은 크게 [가]와 [나]처럼 빈민구제에 적극적인 입장과 [다] 및 [라]처럼 냉소적이거나 도구적인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이들 두 제시문 그룹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학생들이 올바르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아울러 각각의 집단 내에서, 즉 [가]와 [나] 사이 및 [다]와 [라]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점들을 각각 찾아낼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문제 2] 본 문항은 빈부에 대한 여러 견해를 두루 이해하여 비판적 시각과 판단력을 지닐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문 [마]는 사회의 구조적·제도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빈곤의 문제를 들었고, 제시문 [바]는 빈부에 대처하는 진정한 자세를 생각해 보게 하는 지문을 들었으며, 제시문 [사]는 부를 향유하려는 심리 속에 반성적으로 성찰할 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을 배치하였다. 빈부에 대한 다각적인 성찰과 비판적 분석이 이 문항을 풀어나가는 관건이다.

[문제 3] 현대 사회에서 일자리는 소득과 부의 원천일 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위한 개인의 정체성의 한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직업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뿐 아니라, 사회 내의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각자 만족스러우면서도 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일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발전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2013>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고른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분야를 해마다 하나씩 골라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정책적 대안 분석을 보고서로 엮고 있는데, 2013년 보고서의 주제는 바로 ‘일자리(jobs)’였다. 문제가 발췌,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가진 직업관, 특히 개인적 선호도와 사회적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조사는 중국, 콜롬비아, 이집트, 시에라리온의 4개국에서 이루어졌으며 나라마다 응답자들의 직업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물론 각 나라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반영할 것이다.

‘일자리’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 흥미롭고 중요하지만, 문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배경 자료의 한계를 감안하여 문제는 설문조사 결과 자료의 일부를 요약문,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고 수험생이 주어진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사회과학도가 학문적 탐구에서 접하게 되는 정보는 실제로 문제가 압축하여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현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통계를 글이나 표 또는 그림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된 정보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회과학도의 중요한 소양이라 하겠다.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전통윤리』 교과서에서 발췌한 글로, ‘경세제민’과 ‘경국제민’ 등 전통적인 유학사상에 담겨 있는 경제관을 바탕으로 한 균등분배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맹자의 가르침과 토지제도 개혁안이 빈곤층 구제 문제에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항산’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빈곤을 방지하려는 자세가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아마티아 센의 『불평등의 재검토』에서 일부를 선별 및 재구성한 글이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빈곤을 이해하려는 전통 경제학에 대하여 개인 차원에서 겪게 되는 서로 다른 환경적

요인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역량’의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빈곤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제시문 [다]는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에서 발췌한 글로서, 산업화 시대에 들어와 사회적 고민거리로 등장한 빈곤층을 바라보는 서구사회의 일부 시각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다니엘 디포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 관점, 즉 빈민들에게 시혜를 베풀 경우 나라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냉소적인 관점을 기술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포스트모더니즘 시각에서 빈곤문제를 다루고 있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새로운 빈곤』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에서는 산업 시대에 어떻게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가 하는 구체적인 사회상을 그려내고 있다. 당시 빈곤층을 사회적 골칫거리고 간주하면서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공장노동에 투입하여 여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도구적 관점이 잘 묘사되어 있다.

제시문 [마]는 조지 애컬로프와 로버트 쉐러의 『야성적 충동』에서 발췌하여 다듬은 글이다. 제시된 대목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사회적이고 제도적 맥락에서 미국 흑인들의 빈곤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가 담겨 있다.

제시문 [바]는 다산 정약용의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에 수록된 편지글을 뽑아 약간 다듬은 것이다. 해당 지문은 가난과 곤궁을 근심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인격을 수양하고 학문을 탐구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는 권고를 담고 있다.

제시문 [사]는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 발췌하여 다듬은 글이다. 제시된 대목은 부와 권세를 선망하는 진짜 이유가 타인에 대한 과시와 우월감을 주기 때문이라는 자본주의적 분석이 담겨 있다.

1 제시문 [가]~[라]와 관련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가]와 [나]를 A, [다]와 [라]를 B로 묶을 때, 빈곤에 대한 A와 B의 시각 차이를 대비하시오.
- (2) 빈곤 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가]와 [나]의 차이, [다]와 [라]의 차이를 각각 서술하시오.

문항 분석	
what	how
제시문 [가]와 [나], 제시문 [다]와 [라]를	각각 A, B로 묶어라
빈곤에 대한 A와 B의 차이를	서술하라
[가]와 [나]의 차이, [다]와 [라]의 차이를	빈곤 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각각 서술하라

● 요구사항(requirement)

- 빈곤에 대한 A([가]와 [나])와 B([다]와 [라])의 시각 차이를 대비하라.
- 빈곤 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가]와 [나]의 차이, [다]와 [라]의 차이를 각각 서술하라.

- (1)에서는 제시문을 두 개씩 묶어 각 집단의 빈곤에 대한 시각차이를 대비하라고 하고 있다.
- (2)에서는 각 제시문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여 주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야 한다.
- A 집단([가]와 [나])은 빈곤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경제제민, 경국제민, 향산, 분배의 균등을 통한 모든 백성의 삶의 질 보장).
- B 집단([다]와 [라])은 빈곤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역설, 민폐, 생산활동 방해, 노동 윤리).

2 제시문 [마]와 [바]의 빈부에 대한 견해를 요약하고,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문 [사]를 비판 하시오. [30점]

문항 분석	
what	how
제시문 [마]와 [바]의 빈부에 대한 견해를	요약하라.
제시문 [사]를	제시문 [마]와 [바]의 관점에서 비판하라.

●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마]와 [바]의 빈부에 대한 견해를 요약하고,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문 [사]를 비판하라.

- 두 제시문에 나타난 빈부의 견해를 요약하고 각각의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을 비판하라고 하고 있다.
- 따라서 각 제시문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 제시문 [마]는 미국 흑인의 빈곤 요인을 기술, 금융 자산의 부족 등 개인적 조건 때문이라는 표준 경제학의 관점과 차별, 불공정성 등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조건에 주목해야 한다는 논자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제시문 [바]는 삶의 자세에 대한 대인과 소인의 차이를 대비하여 물질적 부 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제시문이 소개한 조사에서는 개인적 선호도와 사회적 중요도 이외에도 응답자가 느끼는 직업별 취업 가능성을 물어보았다. <표>는 4개국 중 어느 한 나라 응답자들의 취업 가능성 설문 결과를 지역 및 성별로 세분화한 자료이다. 성별 응답을 검토해 보면 응답자 중 남성과 여성의 구성비가 1:1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중 도시와 농촌의 구성비를 추론하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문항 분석	
what	how
응답자 중 도시와 농촌의 구성비를	추론하라.

● 요구사항(requirement)
 - 응답자 중 도시와 농촌의 구성비를 추론하고 그 근거를 밝혀라.

- 제시문에 소개된 자료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적절하게 지표를 이용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가중평균의 가중치를 찾아내야 하고 적어도 다른 한 직업을 더 고려해서 답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1 우수답안

(1) 제시문 [가]와 [나]를 포괄하는 A그룹은 빈민구제에 있어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경제’의 개념이 본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치활동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항산’이라는 핵심관념을 달성하는 일이야말로 군주의 미덕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의 경우에는 기존의 ‘소득’ 기준만으로는 ‘빈곤’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가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단순한 소득 증가보다는 이러한 역량을 길러주는 적극적인 방안이 빈민구제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A의 경우에는 사회의 빈곤문제를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생각과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제시문 [다]와 [라]를 묶은 B그룹은 빈민구제에 대하여 냉소적인 입장, 또는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A그룹과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다]에 소개된 다니엘 디포의 경우에는 빈민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라]의 입장은 이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빈곤층들을 산업노동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치료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노동 윤리’는 바로 이러한 시각의 결과물이며, 로크가 시도했던 구빈원 계획 역시 빈곤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산업화시대의 시도를 대변한다. 하지만 이러한 B의 입장은 빈곤층 문제를 인간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문제 해결’ 또는 ‘효율성’ 차원에서만 다루려는 도구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A의 입장과 대비된다.

(2) 제시문 [가]와 [나]가 빈곤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가]에서는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나]의 경우 개인 차원의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가]의 경우 ‘균등’ 관념을 강조하면서 백성 모두의 생계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나]의 주장은 사람들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역량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들 사이에 나타나는 편차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나]에서 제시하는 빈민 구제는 이러한 편차를 반영한 차등적인 지원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제시문 [다]와 [라]의 경우 빈민 구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라]에서는 노동 윤리를 강조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다]의 경우 빈민 구제의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다]에 드러난 다니엘 디포의 견해는 빈민들을 구제하는 행위 자체가 가져올 폐단을 강조함으로써 하나의 ‘역설’을 대변한다. 이에 비해 산업화 시대의 노동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라]에서는 빈곤층을 공장으로 보내어 관리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런 방법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빈민 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맥락에서 빈민 구제 자체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제시문 [다]와 엄격한 노동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빈곤층을 일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라]의 입장 사이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 우수답안 분석

이 문제는 4개에 달하는 서로 다른 제시문들의 입장을 구분해내고 이들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에 핵심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번 문제는 제시문 [가]와 [나]로 이루어진 A, 그리고 [다]와 [라]로 이루어진 B 사이의 공통점을 먼저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A, B 두 집단 사이의 차이점을 묘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A와 B 두 집단의 구분을 이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A 집단이 지니고 있는

시혜적인 입장과 B 집단이 보이고 있는 부정적인 입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가]의 경우 백성이 곤궁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만 훌륭한 통치행위라는 가르침인데, 여기에서 구휼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한 논의를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시문 [나]의 경우 ‘빈곤’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여 새로운 빈민 구제방안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제시문 [다]와 [라]의 경우 빈곤층을 대하는 입장이 매우 엄격하고 심지어 부정적이라는 점이 답안에 명기되어야 하며, 산업화 시대에 들어와 발전과 성장과정에 ‘걸림돌’로서 빈곤층을 바라보는 입장이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2)번 문제는 서로 유사한 입장 사이에도 존재할 수 있는 미묘한 차이들을 학생들이 가려낼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A 집단의 경우, 먼저 제시문 [가]와 관련하여 경제제민, 백성, 균등, 분배 등의 주제를 통해 빈민구제의 관념이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제시문 [나]에서는 빈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개인’ 사이에 나타나는 편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역량’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빈민 구제방안에 대한 언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B 집단의 경우 제시문 [다]에서는 디포의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을 묘사해낼 수 있어야 하며, [라]의 경우에는 냉소적이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구사한다는 점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라]의 입장이 A 집단처럼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구제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답안에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2

우수답안

제시문 [마]는 미국의 흑인들이 빈곤한 이유를 분석의 주 대상으로 삼았다. 표준 경제학에 따르면 흑인들의 빈곤은 기술이나 금융 자산 같은 개인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논자는 개인적인 요인만큼이나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요인들, 즉 차별, 자존감, 불공정성이 빈곤을 지속시키는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지문은 특히 미국의 학교 교육을 예로 들어 흑인들에게 가해진 빈곤의 탓이 일상화된 차별과 불공정성의 결과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바]는 대인과 소인의 삶에 대한 자세를 구분하여 어떤 삶이 가치 있고 훌륭한가를 말하고 있다. 성정을 수양하고 학문을 탐구하며 정신을 기르는 대인의 삶이 악착스레 이익을 추구하고 육체를 기르는 소인의 삶보다 가치 있다는 내용이 지문의 핵심이다. 이 속에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부보다는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이 담겨 있다.

한편 [마]와 [바]의 관점에서 볼 때, [사]에 제시된 부와 권세는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는 부와 권세가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타인에 대한 과시와 우월감 그리고 허영심이 부귀를 선망하는 진짜 이유라고 파악하였다. [사]에 제시된 이런 부귀는 [바]의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소인의 삶과 관계된다.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부귀를 추구하는 삶은 물질적 조건에 검소하게 대처하며 내면의 가치를 각성하라는 [바]의 권고와 정면으로 상충한다. [마]의 관점에서 보아도 [사]의 부귀는 부정적인 대상이다. 사회적 차별과 불공정성을 제거해야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의 궁극적 주장이므로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부를 축적하거나 향유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우수답안 분석

빈부를 바라보는 시각, 분석하려 주요 문제, 이에 대한 대안은 여러 갈래일 수 있다. 문항에서는 [마], [바], [사]의 세 가지 제시문을 통하여, 빈부에 대한 여러 견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를 바탕으로 타당한 분석과 비판을 진행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따라서 이 문항을 풀자면 각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이 필요하고, 특히 [사]에 포함된 부정적 현상에 대한 비판력이 요구된다.

위의 우수답안은 문항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리 있게 기술하였다. 우선, 빈부에 대한 견

해를 요약하라는 물음은 [마]와 [바]에 포함된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분명하게 요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의 우수답안은 [마]를 요약하는 부분에서는 표준 경제학의 시각과 논자의 분석 시각을 대비하여 그 핵심을 간명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교육에서의 차별이 일상화된 차별의 구체적 예시임을 놓치지 않고 서술하였다. 제시문 [바]의 요약 부분에서도 지문의 주제에 해당하는 대인과 소인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 내고 있으며, 정신과 육체, 물질과 내면을 기준으로 삼아 대조적 의미를 간명하게 서술한 것도 이 우수답안의 장점이다.

[마]와 [바]의 관점에서 [사]의 문제점을 비판하라는 물음은 [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한층 깊은 비판적 사고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위의 우수답안은 [사]에 포함된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후에 [마]와 [바]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하였다. 비판의 대상을 분명하게 포착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또한 [마]와 [바]의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사]에 대한 비판이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우수답안은 주어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요구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정연하게 작성된 글이라고 할 만하다.

3

우수답안 및 분석

(1) 남성의 응답과 여성의 응답을 직업마다 단순 평균해보면 전체 응답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문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응답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1:1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도시지역의 응답과 농촌지역의 응답을 단순 평균해서는 전체 응답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구성비는 1:1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도시의 구성비를 x 라 하고 농촌의 구성비를 $(1-x)$ 라 할 때, 농부에 대한 응답 값을 가중평균하면 $2.8x + 1.8(1-x) = 2.1$ 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 식을 만족하는 x 의 값은 0.25이다. 즉, 도시와 농촌의 구성비는 $0.25:0.75 = 1:3$ 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 구성비가 표 전체에 적용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를 사용해 나머지 직업들에 대한 응답 값의 가중평균도 구해보면 상점주인의 경우 $(1/4)3.8 + (3/4)4.2 = (3.8+12.6)/4 = 16.4/4 = 4.1$, 교사의 경우 $(1/4)4.9 + (3/4)5.3 = (4.9+15.9)/4 = 20.8/4 = 5.2$, 의사의 경우 $(1/4)5.7 + (3/4)5.5 = (5.7+16.5)/4 = 22.2/4 = 5.55$, 공무원의 경우 $(1/4)5.7 + (3/4)5.9 = (5.7+17.7)/4 = 23.4/4 = 5.85$ 가 나오므로 모든 경우에 일치한다.

(2) <표>에서 도시와 농촌의 구성비가 1:3임을 알았다. 각 그림에는 도시와 농촌의 응답이 따로 나와 있으므로 각 응답을 1:3으로 가중 평균하면 전체 응답 결과를 알 수 있다. 농촌의 비중이 3배로 높기 때문에 농촌 지역 응답자의 의견이 전체 의견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하기에 앞서 경향을 살펴보면, 개인적 선호도에서는 농부, 상점주인, 공무원이 높은 편이고, 사회적 중요도에서는 교사, 농부, 공무원이 높은 편이다.

상점 주인은 개인적 선호도가 높고 사회적 중요도가 낮는데, 4개국 모두 개인적 선호도가 더 높다고 했으므로 상점 주인에 대한 수치는 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계산해보면 개인적 선호도는 $(1/4)27\% + (3/4)18\% = 20\%$, 사회적 중요도는 $(1/4)4\% + (3/4)3\% = 3\%$) 교사는 사회적 중요도에서 높고 개인적 선호도에서 낮는데 이를 통해 이 나라가 이집트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참고: 개인적 선호도 $(1/4)16\% + (3/4)14\% = 15\%$, 사회적 중요도 $(1/4)26\% + (3/4)30\% = 29\%$)

농부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는 $(1/4)8\% + (3/4)34\% = 27.5\%$ 이고 사회적 중요도는 $(1/4)25\% + (3/4)29\% = 28\%$ 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면서 사회적 중요도가 조금 높다. 이 정보로는 시에라리온일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나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적 선호도가 $(1/4)28\% + (3/4)17\% = 20\%$, 사회적 중요도가 $(1/4)32\% + (3/4)21\% = 23\%$ 로 사회적 중요도에서 좀 더 높게 나왔다. 이는 4개국 중 중국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다.

의사는 개인적 선호도, 사회적 중요도 모두 낮다. 계산해보면 개인적 선호도 $(1/4)17\% + (3/4)9\% = 11\%$, 사회적 중요도 $(1/4)12\% + (3/4)14\% = 13\%$ 로 사회적 중요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지만, 수치 자체가 다른 직업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제시문에 주어진 중국에 대한 설명에 부합한다.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표와 그림 자료는 중국 응답자들의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